

2008. 11. 17 제203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11. 17 제203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보스톤市の 대학-지역사회 종합관리계획체계

### 문화·디자인

1. 시민이 만드는 도시 브랜드 전략, 'Be Berlin' (베를린)
2. 관광·축제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상하이)
3. 보석산업 메카로 부상 (상하이市 푸동 지역)

### 건강·복지

4. 기업이 100개 초등·중학교에 정원 조성기금 지원 (영국)
5. '평생학습 도시' 조성 (상하이)
6. 실업자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계획 발표 (영국)
7.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어요 (베를린)

### 행정·재정

8. 제안 경쟁형 공공 서비스 개혁제도 도입 (요코하마)

## 목 차

### 방재·안전

9. 버스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CCTV 설치 (런던)
10. 승객 친화적인 대중교통 안전 모색 (시카고)

### 도시환경

11.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옥상정원 (런던)
12. '지구를 위한 나무심기' 단체의 나무를 위한 달리기 (독일)
13. 방치된 간판 제거하기 공동 캠페인 (도쿄)
14. 친환경 생태도로 연내 착공 (상하이)
15. 시민 90% 이상이 에너지 절약제품 구입의사 밝혀 (상하이)

### 도시교통

16. 교통 소통상황 인지하는 지능형 신호등 설치 (브라질 쿠리치바市)
17. 지하철 노선 시설 개선에 대한 시민 온라인 토론회 (런던)
18.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프로젝트 (베를린)
19. '수도 고속도로 에코·로맨틱 주차' 환경 이벤트 개최 (일본 가나가와縣)

### 도시계획·주택

20. 2010년 이전에 건설 경기 불황 예측 (뉴욕)

## [벤치마킹 사례]

### 보스턴市の 대학-지역사회 종합관리계획체계

#### <주요 내용>

- 보스턴市는 대학이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하는 ‘대학캠퍼스 종합계획’(IMP: Institutional Master Plan)을 도입함.
  - 대학이 캠퍼스 및 의료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함.
    - 대학의 개발사업을 도시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연계함.
  - IMP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대학이 캠퍼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보스턴 재개발국(BRA: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둘째, 대학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주변의 토지이용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셋째, 대학의 시설확장이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IMP 수립 조건은 신축인 경우 연면적 1858m<sup>2</sup> 이상, 리노베이션인 경우 연면적 4만 6395m<sup>2</sup> 이상 등 사업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결정됨.
  - IMP는 캠퍼스 시설 현황, 장기계획 목표, 개발계획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보스턴 재개발국의 조닝위원회(ZBA: Zoning Board of Appeals)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함.

- 조닝위원회는 IMP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주민은 IMP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학의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획 협의권을 가짐.
- 주민 의견수렴 및 공람은 초기 검토단계에서 수정 검토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4회 진행되며, 각 이해당사자 간 심층적인 계획 협의가 가능함.

- IMP의 역할 및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조닝위원회가 승인한 IMP가 수립된 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은 계획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토지이용 변화가 가능함.
- 일정한 사업대상지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를 자유롭게 수립하는 계획단위 개발방식(PUD: Planned Unit Development)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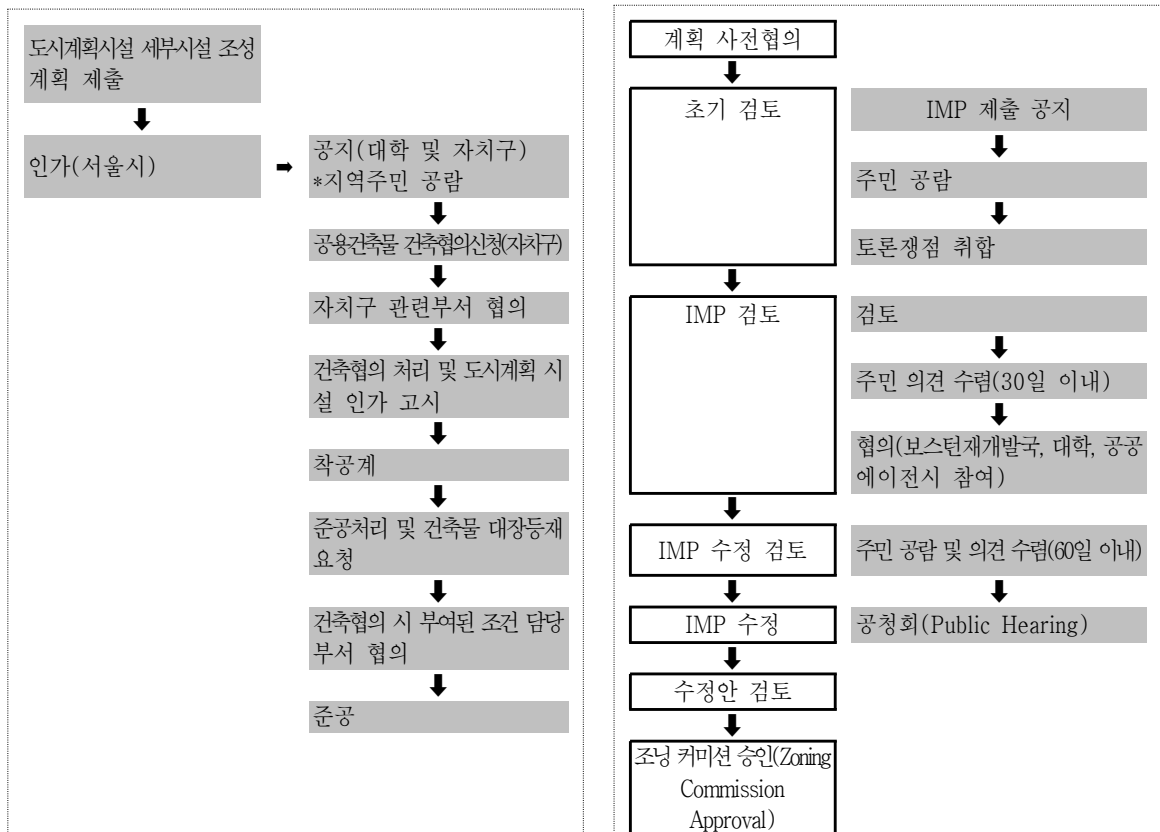
### <해설 및 평가>

- 대학의 개발사업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 계획을 수립함.
- 대학과 사회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쇠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 대학 R&D 시설 건설이나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캠퍼스 인접 지역에 조성해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
- 대학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원함.
- 대학의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을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간선가로변에 설치해 지역생활 수준을 높이고, 노후한 지역사회 주거환경을 개선함.
- 대학의 의료·복지 지원시설과 기숙사 시설을 캠퍼스 주변에 배치해 캠퍼스 타운의 기반시설을 구축함.
- 대학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함.
-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활성화됨.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 대학의 지역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도시계획 체계

- 대학의 캠퍼스 조성계획은 산발적으로 추진돼 구릉지를 훼손하거나 난개발 되는 양상을 보임.
- 대학을 지역발전의 잠재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IMP와 같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선해야 함.



국토계획법 절차: 도시계획시설(대학)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수립체계

보스톤市 조닝 오디넌스(Zoning Ordinance) 절차: IMP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 대학을 지역발전의 잠재력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대학과 자치구 간 협의 부족, 원만하지 않은 재정문제, 대학시설의 지역 개방에 따른 학업환경 침해 등임.

- 대학 캠퍼스 담장 개방사업을 통한 대학-지역사회 연계효과가 미미하거나 캠퍼스 개방에 따른 치안문제, 도서관 개방 후 학생과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 수가 급증해 시설을 다시 폐쇄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대학의 시설확장, 교육환경 개선, 재정확보 전략이 대학-지역사회의 협력, 강남북 균형발전, 쇠퇴지역 경제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건국대학교 주변의 ‘스타시티’나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광진 구민센터 신축사업, 동국대학교의 충무로 영화산업 활성화 사업, 서울대학교-관악구청의 ‘UniverCity’ 계획 등이 해당 사례임.

### <벤치마킹 시행방안>

- 대학 캠퍼스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지역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학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을 검토하고, 현행 용도지역제에 대학병원 캠퍼스의 토지이용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대학-지역사회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현재 대학 주변에 지정돼 있는 뉴타운사업 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전략정비 사업에 대학의 참여·연계 방안을 모색함.
- 주거 위주 정비의 한계를 극복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중심지를 조성하는 정비로 전환함.
- 노후한 지역사회나 대학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2권에 우선 선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벤치마킹 기대효과>

-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생활시정을 구현하고,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캠퍼스 타운의 문화적 장소성을 갖춘 지역사회 친화적 사업효과를 가짐.

/여혜진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hjy@sdi.re.kr)

## 문화 · 디자인

### 1. 시민이 만드는 도시 브랜드 전략, 'Be Berlin' (베를린)

- 베를린시는 2008년 10월 빛 축제를 개최하고, 빛 축제가 열린 장소들을 도시 캠페인의 장소로 이용함.
  - 시는 수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8년 봄부터 베를린을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 'Be Berlin'을 모집하여, 그 결과를 2008년 9월 베를린시 8개 주요 전철역에서 전시한 바 있음.
  - 빛 축제 기간에 베를린 슬로건 만들기 행사를 다시 진행함. 이전에는 독일어로 만든 슬로건만 모집했지만 이번에는 영문 슬로건을 모집함.
    - 베를린시는 빛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슬로건이 들어오는 대로 브란덴부르크 문 위에 빛으로 투사함.
  - 베를린시는 수도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외교통상부와 괴테 인스티튜트, 독일 대사관과 함께 외국에서도 슬로건을 모집하기로 함.
    - 베를린시를 방문한 외국인에게 베를린을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으로 만들도록 해, 베를린에 대한 외국인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국제적인 베를린 도시 캠페인에 응용할 계획임.



브란덴부르크 문 위에 빛으로 투사된 슬로건 'be free, be sexy, be berlin'

([www.sei.berlin.de/festival-of-lights](http://www.sei.berlin.de/festival-of-lights))



## >>> 전문가 검토의견

- 국제화 및 네트워크화로 전 세계의 도시들은 자본과 인재, 명성, 주민 및 관광객을 놓고 다른 도시들과 생존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특히 방문, 주거, 구매투자 결정 과정에서 도시의 브랜드 내러티브(Brand Narrative)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도시브랜드 전략이 중요하게 대두됨.
  - 도시브랜드 전략의 과정은 도시의 장소 자산과 지역 여건을 분석해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이에 기반을 둔 도시 슬로건과 로고를 만들어 도시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것임. 도시 슬로건과 로고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과 상징 공간 육성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함.
- 서울수도 도시브랜드 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브랜드 수립부터 효율적인 홍보방안까지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임.
- 베를린市の 경우, 'Be Berlin'이라는 대주제 아래 베를린과 관련된 슬로건을 내·외국인에게서 모집하는 입체적 전략이 특징임.
  - 시민과 관광객이 베를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고, 이를 다시 베를린의 도시브랜드 전략에 연결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 분석과 슬로건 수립, 홍보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쌍방향적 전략은 서울시 도시브랜드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 2. 관광·축제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개최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에 3회를 맞는 '상하이 관광·축제 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을 2008년 10월 14일 개최해 석 달간 공모에 들어감. 그동안 관광기념품 관련 산업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데 반해, 상품의 창의성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 이번 공모전은 전문 디자이너 참가 부문과 시민 참가 부문을 구분해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수상 특전을 지원할 계획임.
- 상하이市 여행위원회 통계의 따르면, 매년 약 1억 명의 관광객이 상하이를 방문하고 있어 여행기념품의 연매출 규모가 약 15억 달러에 달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1877.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1877.html))

## 산업 · 경제

### 3. 보석산업 메카로 부상 (상하이市 푸동 지역)

- 중국 최고의 다이아몬드 산업단지가 상하이市 푸동 지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미 정부 주도형 보석가공 산업단지가 있지만 원석 수입부터 가공, 디자인, 세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기업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는 처음임.
  - 현재 세계 제2의 다이아몬드 생산가공 수출기지로 부상한 중국은 다이아몬드 산업 장려를 위해 세수혜택을 주고 있음.
    -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원석 다이아몬드는 관세를 면제함.
    - 완성품 다이아몬드의 관세도 17%에서 4%로 대폭 인하했고, 중국에서 가공된 완성품 다이아몬드가 상하이 다이아몬드 거래소를 통해 내수판매될 경우 관세를 면제함.
  - 상하이 다이아몬드 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한해 수입 완성품 다이아몬드는 59만 3800캐럿으로 시가는 4억 3900만 달러(약 6080억 원)에 달함.

([sh.xinmin.cn/shehui/2008/10/14/1386015.html](http://sh.xinmin.cn/shehui/2008/10/14/1386015.html))

### 4. 기업이 100개 초등·중학교에 정원 조성기금 지원 (영국)

○ 영국의 유명 시리얼 제조회사가 ‘식용 놀이터 프로그램’(Edible Playgrounds Scheme)을 진행해 초등·중학교에 채소와 과일을 기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임.

- 초등·중학교 100개를 선정하고, 정원을 처음 만들 때 필요한 장비와 종자를 제공함.

·정원 가꾸기에 대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하고, 월간 소식지를 발간함.

·학교별로 지원받게 될 정원 조성 장비, 종자, 요리책, 사과나무 묘목 등에 드는 예산은 약 300파운드(약 68만 원)임.

- 기존 학교 교과과정과 식용 작물 재배 연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이용한 조리법 정보 제공은, 지속가능한 식품 소비와 환경교육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www.farmgarden.org.uk/win-a-school-veg-garden.html](http://www.farmgarden.org.uk/win-a-school-veg-garden.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기업이 학교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자사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도 높이고 학생들과 교사에게 먹거리 재배 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좋은 사례임.

·불량식품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직접 학교 공간 내에서 기르고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되 의욕있는 학교를 선발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면서 교육효과도 높임.

- 서울시는 ‘생명의 숲’을 중심으로 녹색자금을 이용해 수목 식재 등에 중점을 둔 ‘학교 숲 운동’을 진행해 왔음.

·학교 교육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방안을 도입하고 식품 관련 기업과 연대해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각종 노하우 축적, 학생의 건강 관심 유도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5. ‘평생학습 도시’ 조성 (상하이)

- 상하이市는, 매년 전체 취업인구의 1/3 이상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임.
  - 최근 시민 평생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함.
    - 2000여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시민 평생교육 카드 제도를 마련해 학점 은행 시스템 체계를 갖출 방침임.
  - 시민은 교육 커리큘럼 선택부터 교육시간, 시험시간 등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음.
    - 평생교육 관련 법제화를 통해 정부, 기업, 개인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 상하이市를 ‘평생학습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임.
  - 상하이市의 80% 이상의 시민은 문화·교육비에 기꺼이 지출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됨.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2522.html](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4411/userobject21ai302522.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하이市의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은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임.
  - 평생학습의 주 타깃을 취업인구로 설정하고 취업인구의 1/3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市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
  - 특히, 신설되는 2000여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목할 만함. 무료 제공은 학습자 부담의 교육프로그램 개설에서 소외될 수 있

는 저소득계층에게 평생학습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 주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도 시민대학, 시립 직업학교, 서울여성발전센터, 자치구 등을 중심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시·도지사의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평생교육 관련 법·제도 구비 및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임.

·7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도 상하이市처럼, 수익자 부담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무료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 6. 실업자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계획 발표 (영국)

○ 영국 정부는 실업자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해 1억 파운드(200조 1000억 원)의 재정 투자계획을 발표함.

- 정리해고 대상이나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이나 새로운 직업교육에 쓰일 예정임. 특히 최근 세계적 신용경색에 의한 실업을 줄이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에 사용할 예정임.

·2008년 6~8월 실업자가 16만 4000명이나 늘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많음.

·이 재정은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뿐 아니라 직업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데도 쓰일 것임.

([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54114](http://www.regen.net/bulletins/Regen-Daily-Bulletin/News/854114))

## 7. 정신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어요 (베를린)

○ 베를린市는 ‘예술과 문화 속에서의 정신건강’이라는 모토로 2008년 11월 6~12일 ‘정신건강을 위한 베를린 주간’(Berliner Woche der Seelischen Gesundheit) 행사를 개최함.

- 정신병을 앓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호시설과 치료·재활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위해 110개의 시설과 협회·단체가 참여함.
- 정신병은 우울증부터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정신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함.
-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예술창조가 정신건강을 위해 갖는 의미에 대한 강연회와 정보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렸음.
  - 심리적 위기상태에 예술적 창의를 연결해 정신병을 예방·치료하고자 하는 13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됨.
- 노동도 중요한 테마로 다룸.
  - 정신병 환자에게 노동은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자신감, 하루의 생활 구성, 사회적 접촉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이들을 어떻게 직업생활에 참여시켜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가 논의됨.
- 폭력 피해 여성과 가정과 학교에서 억압받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젝트도 소개됨.

(aktionswoche.seelischegesundheit.net)

(www.berlin.de/lb/psychiatrie/aktuelle\_projekte/#aktionswoche)

## 행정 · 재정

### 8. 제안 경쟁형 공공 서비스 개혁제도 도입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행정과 민간이 서로 경쟁하고 제안해 좀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안 경쟁형 공공 서비스 개혁제도'를 도입함.
  - 이 제도는 관민 경쟁 입찰 등의 개념을 도입해 지출을 줄이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2007년 12월 공공 서비스 개혁 기본방침을 개정하고, 2008년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쟁 도입에 의한 공공 서비스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공공 서비스 개혁법에서는 간소하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고,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 선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도록 함.
    -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 그리고 경비 삭감을 목표로 함.
    - 이번 기간의 조사 실시는 관민 입찰 대상 업무에 대해 민간 사업자 및 지방 공공단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목적임.

([www.city.yokohama.jp/me/keiei/kyoso/markettest/](http://www.city.yokohama.jp/me/keiei/kyoso/markettest/))

## 방재 · 안전

### 9. 버스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CCTV 설치 (런던)

- 런던市는 안전한 공공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 내 실시간 CCTV를 설치해 6개월 동안 영국 북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21개의 2층 버스 안에 설치된 CCTV는 통제센터인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과 런던교통경찰국실행단(Metropolitan Police's Transport Operational Command Unit)에 실시간 전달됨.

·CCTV는 운전자가 통제센터에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버스 내 상황을 전할 수 있음. 버스운전자와 통제센터가 연계된 런던경찰국의 운영자는 실시간 화면을 통해 현장에 바로 경찰을 파견할 수 있음.

- 市는 시범기간 동안 운영이 성공적인 경우 다른 버스 운영지역에도 실행하고 이를 홍보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336](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336))

## 10. 승객 친화적인 대중교통 안전 모색 (시카고)

○ 시카고市 교통국은 대중교통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객 친화적인 전철 개혁을 발표함.

- 전철의 기기 결함이나 긴급 재난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상황, 서비스 변동에 관한 정보 등을 이메일로 승객에게 제공하기로 함.

·공지메일을 받고 싶은 승객은 교통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함.

- 2009년 초부터는 재난정보를 문자메시지로도 제공할 계획이며, ‘긴급 정보 핫라인’도 개설할 예정임.

·2010년에는 전철의 현 위치와 다음 정차역을 실시간 지도로 보여주는 비디오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임.

([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1:868636557](http://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1:868636557))

### 한줄 뉴스

<도쿄>

- 2008년 11월 20~23일 ‘페스티벌 프랑스 글래머(Glamour)’ 개최 등 해외 대도시와 문화 교류
- 복지 관련 시설 구직자 합동 채용시험을 실시해 복지 분야 인력의 네트워크화



## 도시 환경

### 11.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옥상정원 (런던)

- 런던시 크로이든區(Croydon Council)는 서리거리(Surry Street)의 큐파크 주차장(Q-Park Car Park) 옥상에 90m<sup>2</sup> 면적의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채소를 심음.
    - 區는 녹지 옥상정원에서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도시계획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와 관련해 지역 커뮤니티와 사업자, 개발업자의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임.
-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853948)

### 12. ‘지구를 위한 나무심기’ 단체의 나무를 위한 달리기 (독일)

- 독일의 환경 관련 학생조직인 ‘지구를 위한 나무심기’(Plant for the Planet)가 유엔의 환경프로그램인 ‘Billion-Tree-Campaign’의 일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2009년까지 독일 전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가 심길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10월 독일 연방 환경부 국가비서관은 이들 학생 대표단을 맞이해 그들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운동을 격려하고 목표가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그동안 학생들은 수백 통의 편지를 기업이나 개인에게 보내 나무나 지원금을 받았고, 현재 21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거나 확보한 상태임.
    - 이 운동의 지역행사의 하나로 ‘나무를 위한 달리기’(Run for Trees)라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함.
    - 달리기는 싫어하지만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해 1km에서 10km까지 다양한 달리기 구간과 걷기 구간을 마련해 진행함.
- (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2377.php)  
(www.umwelt-ikg.de/run%20for%20trees/runfortrees.htm)

### 13. 방치된 간판 제거하기 공동 캠페인 (도쿄)

- 도쿄都는, 도시경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응해, 방치된 간판이나 벽보, 입간판(立看板) 등을 도로관리자, 경찰, 도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 이 캠페인은 1997년부터 시작해, 2007년에는 약 8700건의 위반 광고물을 제거함.
  - 2008년에는 좀더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
- 협력 단체는 경찰청 및 경찰서, 도민 단체(반상회 및 상점회), 도쿄 전력, 도덴광고(주), 일본 전신전화(주), 도로 관리자, 도쿄都 택지건물 거래업 협회, 도쿄 옥외광고 협회 등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o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o200.htm))

### 14. 친환경 생태도로 연내 착공 (상하이)

- 상하이市는 인근 도시인 총밍(崇明)에서 치둥(啓東) 지역을 잇는, 중국 최초의 친환경 생태도로 공사를 2008년 안에 착공함.
- 이 고속도로는 산림, 습지, 농업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지나게 되므로, 고속도로 건설 부지의 높이를 상하이市 규정보다 20~40% 낮추고 도로 소음 기준도 2~3db 낮춤.
- 상하이市 북쪽 인근 지역을 잇는 관문으로서, 완공되면 상하이市와 장쑤(江苏) 지역 간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 총 투자액은 약 76억 위안(약 1550억 원)에 달하며, 2012년 개통을 목표로 함.

([sh.xinmin.cn/shehui/2008/10/15/1387827.html](http://sh.xinmin.cn/shehui/2008/10/15/1387827.html))

## 15. 시민 90% 이상이 에너지 절약제품 구입의사 밝혀 (상하이)

- 상하이市 시민이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매하는 데 기꺼이 돈지갑을 열겠다고 답해 수준 높은 에너지 절약의식을 보여줌.
  - 국가통계국 상하이 조사 부문이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99%가 에너지 절약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25%는 에너지 절약을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으며, 70% 이상은 에너지 절약과 가격, 성능, 브랜드를 고루 고려함.
    - 돈을 더 내더라도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90%에 달함. 이 중 가격의 20% 정도가 더 비싸도 사겠다는 의견이 75.8%로 절대 다수였음. 약 1%는 가격이 두 배가 돼도 살 수 있다고 답함.
  - 최근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책이 상하이市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함.

([www.sh.xinhuanet.com/2008-10/14/content\\_14632896.htm](http://www.sh.xinhuanet.com/2008-10/14/content_14632896.htm))

## 도 시 교 통

## 16. 교통 소통상황 인지하는 지능형 신호등 설치 (브라질 쿠리치바市)

-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남북을 연결하는 ‘린야베르데’(초록색 라인) 도로에 실시간 교통통제 기능과 지능형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정보 도로를 구축함.
  - ‘정보도로’라고 명명된 이 도로에 설치되는 지능형 신호등은 중앙센터와 통신하는 센서를 부착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 통행에 우선권을 주게 됨.
    -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상황을 만듦.

- 버스 통행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버스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4419](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4419))

## 17. 지하철 노선 시설 개선에 대한 시민 온라인 토론회 (런던)

○ ‘런던지하철’(London Underground)은 대대적인 노선 보수사업을 벌이고 있는 빅토리아 라인에 대해 지하철 이용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함.

- 영국의 유명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Question Time’의 타이틀을 이용해 ‘빅토리아 라인 Question Time’ 온라인 토론회가 2008년 10월 23일 열림.

-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의 토론회 웹사이트([tfl.gov.uk/questiontime](http://tfl.gov.uk/questiontime))를 통해 질의응답을 진행함.

- 40년 된 빅토리아 라인은 런던의 동북부와 남서부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간 1억 6500만 명을 실어 나르고 있음.

- 긴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市的 지하철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핵심 사업임. 그 중 빅토리아 라인 보수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함.

- 잠정 운행 중단 및 운행시간 단축 등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시민의 불만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수사업의 진척상황과 장기적인 효과를 지하철공사가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시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교통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0088.aspx](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0088.aspx))

## 18.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프로젝트 (베를린)

- 독일 최대 시민교통운동단체와 베를린市 교통공사, 베를린市 도시발전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장기적 교통안전 프로젝트의 첫 행사가 어린이 350명을 대상으로 열림.
  -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과 전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임.
  - 5일간 계속된 이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자동차나 전철이 얼마나 빨리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지, 버스나 트럭 운전사가 백미러를 통해서도 대상을 보지 못하는 각도는 얼마인지, 자전거로 사고 없이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로 표지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다양한 사례로 보여주고 직접 실행해보도록 함.
  -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해 구체적인 의식과 경각심을 갖도록 함.
- 어린이가 학교에서 도로교통과 교통수단에 대해 배울 때 대부분 이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젝트는 'Learning by Doing'에 기초한 새로운 실천적 교통교육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10/nachricht3228.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810/nachricht3228.html))

### 한줄 뉴스

- 뉴욕市, 하루 평균 100만 달러의 이익을 낼, 약 3만㎡ 규모에 4만 5000여 개의 슬롯머신을 갖춘 카지노 단지 계획안 발표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자녀와 갈등 겪는 엄마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24시간 제공

## 19. '수도 고속도로 에코·로맨틱 주차' 환경 이벤트 개최 (일본 가나가와縣)

○ 일본 가나가와縣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2008년 10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도 고속도로'라는 테마로 '수도 고속도로 에코·로맨틱 주차'라는 환경 이벤트를 개최함.

- 로맨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차 운전이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창조적으로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교통사고나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임.

-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이번 이벤트에서 전기 자동차용 급속 충전기를 주차장에 설치하고, 수도 고속도로가 목표로 하는 환경 친화적인 도로 만들기 대책을 소개함.

·에코 드라이브 의식을 좀더 높여 줄 수 있는 실험형 환경 이벤트로, 즐겁고 효율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주행 방법도 제안함.

([www.team-6.jp/report/news/2008/10/081007a.html](http://www.team-6.jp/report/news/2008/10/081007a.html))

## 도시계획·주택

### 20. 2010년 이전에 건설 경기 불황 예측 (뉴욕)

○ 뉴욕市の 건설 경기가 2010년 이전에 한차례의 호황 후 다시 침체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됨.

- 뉴욕 건설협회(New York Building Congress)는 현재의 건설 경기추세가 주거·비주거 양쪽 부문의 건설 경기를 2009년까지는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2010년에는 금융 경기의 침체로 건설 분야 고용비율이 1997년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뉴욕 건설 전망'(New York Construction Outlook)은 내다봄.

- 건설 작업 건수는 2008년 최고치인 약 12만 건에서 2010년에는 약 10만 건까지 떨어질 것임.
- 2010년까지 뉴욕市の 5개 지역구를 통틀어 1만 8500건의 새로운 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 이는 2008년의 3만 5700건에 비하면 절반이 감소하는 것임.
- 건설 프로젝트가 중도에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40억 달러(약 5조 2000억 원)를 투자해 주거와 오피스 복합 타워를 건설하려던 대규모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이 멈춘 상태임.
- 이러한 불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임. 현재의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건설 지원자금 중 맨해튼市에 할당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함.
- 정부의 건설경기에 대한 지출액은 2009년 174억 달러(약 226조 2000억 원)로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겠지만, 2010년에는 144억 달러(약 148조 2000억 원)로 크게 감축될 것임

([www.nydailynews.com/money/2008/10/14/2008-10-14\\_building\\_boom\\_to\\_go\\_bust\\_in\\_a\\_year\\_says\\_.html](http://www.nydailynews.com/money/2008/10/14/2008-10-14_building_boom_to_go_bust_in_a_year_says_.html))